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angan역상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발간요약 **그말씀/5월 10일 금요일**

5.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 안에서 그 영향

다윗은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리고 다윗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유일한 왕이었으며, 그 어떤 나라도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적이 없었다(다윗은 정복했으나 백성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앙까지 정복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곳을 '나의 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곳은 성도의 마음을 상징하며,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다(고전 3:16). 다윗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유일한 왕이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정복하신 분이시며, 성령만이 죄악으로 황폐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갈 5:22~23). 다윗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그의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 그것은 진실로 성경과 관계없는 판단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죄를 살펴봄으로써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사용된 것은 다윗의 선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편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편을 장악하는 정치적 격약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사울의 부하였던 이브넬을 받아들였고(삼하 3:12, 20),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울의 계승자를 증명했다(삼하 3:13~14). 다윗은 계속해서 외교정책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삼하 5:11), 하나님의 계를 가져옴으로써 종교적인 통일까지도 획득하게 되었으며(삼하 6:1~2), 마침내 그는 통일왕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었다. 이제 점차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다윗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침을 두는 등 권력을 즐기기 시작했다(삼하 5:13).

모든 권세를 쥐고 다스리는 자가 된 다윗! 그는 이렇게 가장 큰 권력 위에 있을 때, 가장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사마리아 11장에 기록된 그의 범죄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지 않았고, 그것은 그의 죄책감과 양심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저지른 그들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암논은 누이 다발을 강간했고, 암살범은 암논을 죽이지 않았는가! 결국 살인자가 된 암살범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권력을 빼앗겼고)하지 않았는가! 그는 부모에게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위해 죄를 범했다(삼하 13:29). 다윗 개인적 죄에서 시작된 고통은 온 이스라엘을 환란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에 임한 이러한 환란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이것은 그저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위대한 왕의 범죄를 분명하고 엄중하게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을 말하고 있다. 다윗의 범죄, 즉 간간과 살인,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녀들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다윗이 돌이켰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분명히 범죄자였고 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의 간직한 눈물의 기도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것이었다(삼하 7:5, 7, 8, 11). 그리고 '나만 선지자를 통해 가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삼하 7:12~14). 진실로 신실하신 주님은 한 양자로 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선언 안을 노래하셨다(삼하 23:1, 5). 다윗은 범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마 1:1).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저주받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선한 말인가?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가(롬 3:23). 저주받을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고 보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은 저주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 않았는가?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그는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 그렇다. 인간의 모든 수직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해결되며, 인간의 가장 큰 수치였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수단이었고, 진실로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죄인만을 위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죄인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고후 6:10)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1절) -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헛되게 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2절) -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은혜 대신에 죄의 책임을 져야하고 구원 대신에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 기독교의 역설, 역설! 오늘날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는 참으로 많은 역설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기쁨 -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러한 이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해하고(살전 5:16~18), 장조주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며(시 144:15), 여러 가지 '시련이나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하며(막 1:2, 뱀전 1:8),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시 47:1).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하며, 용서에는 차별이 없다(요일 1:9). 그래서 용서는 구약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은혜였다(사 44:22, 사 38:17).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분명히 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할 처소가 없었고 대적을 물리칠 창과 검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신 33:27).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고(시 23:1), 바울도 모든 도전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했다(롬 8:31). 주님의 영원한 동행과 돌보심과 인도하심(마 28:20, 히 13:5)이아말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소망으로 분명히 밝기 때문에 기뻐한다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끝나면 거할 곳이 있다(요 14:2).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나라나심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딤후 4:6~8). 만일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장막은 고통스러워도 미려한 소망으로 빛난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요일 3:2).

위임목사 동정

위임목사는 세마니 참석 관례로 출국하였다. 모든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은혜 가운데 마친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신자들의 마음" - 말씀으로 깊이 도전 받고, 진정으로 기도했던 은혜의 시간

지난 화요일 저녁 8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렀으며, 모두들 간절하게 기도했다.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복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하셨다!

기도회 시간에 위임목사를 통해서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통회하는 마음(Broken Heart)을 가진 자들은 죄를 고백하며(시 51:17), 청종하는 마음(Opened Heart)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며(렘 16:14), 성실한 마음(Single Heart)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봉사하게 된다(골 6:5). 순수한 마음(Pure Heart)을 가진 자들은 열정 있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뱀전 1:22), 진실한 마음(True Heart)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히 10:22), 목표로 정한 마음(Purposed Heart)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행 11:23). 그러나 여전히 진지한 마음에는 악마의 마음(Evil Heart)이 솟아나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히 3:12).

* 이번주 신학칼럼은 7면에 게재합니다.

말씀이 가득한 집

가정의 달 특집 1.

강석화 집사 가정(15교구)



강석화 집사 가정은 5부 예배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다. 아버지 강석화 집사와 큰딸 현정은 빨간 안내위원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딸 현지와 막내 아들 문구는 헌금위원 옷으로 갈아입는다. 누가 먼저 5부 예배 때 함께 봉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5부 예배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다. 아마도 오랜 시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공유된 것이 많으리라.

강석화, 양영에 집사 부부는 자녀들을 통해 도전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을 해 줄 때면 은은한 미소로 자랑을 대신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모습에 대한 칭찬이라 더 대견스럽다. 현정씨와 현지, 문구는 부모님들이 구역장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아 왔기 때문에 안내 위원, 헌금위원, 소그룹 조장 등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봉사는 단순히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습관과 의무만으로 봉사를 한다면 금방 싫증이나 나겠지만 이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봉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진다. 양영에 집사는 청소를 하다가 아이들 책상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도전을 받기도 한다. 가끔 새벽 늦은 시간 아직도 공부하는가 싶어 문을 열어보면 성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기도 한다.

가족들이 이처럼 말씀 위에 서서 다 함께 봉사를 하는 원인은 오랜 시간 가족은 가정 예배에 있다고 생각된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시간이 어긋나 예배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각자 말씀을 놓지는 않는다. 현정, 현지, 문구가 성장하여 가정을 갖는다면 그 가정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내 가정, 내 자녀를 세상의 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가정의 달 특집 2.

윤병식 집사 가정(7교구)

윤병식 집사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부터 십일 년 전 아들이 먼저 유년부에 등록하고 윤병식 집사는 그 이후에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그 당시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아들이 선배가 되는 격이다. 윤병식 집사가 교회를 나오면서 다른 가족들도 다 따라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이 모여 가정예배를 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처음 가정예배를 할 때는 아주 어색하고 힘이 들었다. 가족들끼리는 서로의 추함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죄들도 다 보기 때문에 가족끼리 예배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자칫 위선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시작하기가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매일의 예배는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고 말씀으로 피차에게 은혜를 거머쥐 서로를 신뢰 함으로써 온 가정이 바른 신앙의 의식을 찾아가게 해 주었다.

가정예배는 가족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질 수 있고 개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어 대화의 장을 열게 된다. 김진화 집사(윤병식 집사의 아내)가 많이 아파 가정예배 때마다 가족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많이 좋아졌었는데 요즘은 다시 약화되어 다시 김진화 집사의 건강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윤병식 집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들의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다.

가정의 달 특집 3.

철우(가명)의 저녁 약속

철우(가명)는 난처해졌다. 대학에 들어와 변변한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하고 몇 개월을 보냈다. 이제 겨우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어울려 지낸다. 철우는 매일 일찍 들어가 버려 겨우 마음을 터놓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있는 친구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가정예배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예배를 해 온 터라 가정예배를 안 하면 뭔가 어색하고 죄 지은 느낌이다. 먼저 대학을 가서 몇 번 가정예배를 빠졌던 형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정예배를 빠지는 형이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이 보였고 형이 가정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는 형이 변했다고 생각했었다. 형이 늦게 들어와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가정예배를 늦게 시작해 두들거려기도 했었다. 이렇게 철우는 두들거리고 형은 늦었다고 혼나서 화가 난 상태에서도 가정예배는 어김없이 했다.

그러나 철우는 오늘날만큼 양보할 수 없었다. 가정예배는 잠시 뒤로하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철우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예배를 하고 한글을 깨우칠 때부터 성경을 읽어 왔지만 오늘은, 오늘날만큼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다. 11시가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분명 시간을 확인했는데 1분도 못 되어서 다시 시간을 확인하게 된다. 시간이 정말 안 갔다. 그러나 친구들이 좋았다. 그런데 뭔가 불안했다. 결국 철우는 벌떡 일어났다.

"난 가봐야겠어."

친구들의 반응이 불안했다.

"그럼 그렇지, 니가."

"그걸 잘 알았잖아."

철우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우의 마음이 편해졌다. 철우는 생각했다. 친구들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다고, 하나님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그리고 기쁘게 찬양을 했다.

*정보 제공자의 요청으로 기밀처리 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4.

4대가 함께 하는 가정예배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가정예배는 매일의 행사입니다. 결혼한 딸이 아랫집에 살아서 딸과 손자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함께 사셔서 어머니와도 가정예배를 합니다. 4대가 두 번에 걸쳐서 가정예배를 하는 셈이 되지요.

가정예배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도 매일 말씀을 접하게 되니 믿음에서 자라게 되고 힘든 사춘기에도 말씀으로 견전하게 이겨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신앙의 색깔이 달라 부딪히는 가정이 많은데 가정예배를 하게 되면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져 신앙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앙이 부딪히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신앙으로 해결하게 되지요.

요즘은 손자들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게 잘하고 예배가 끝날 때는 마무리 기도를 손자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예배야말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요. 충현의 모든 가정들도 가정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요청으로 이름은 삭제했습니다.

죄인의 집 (눅 19:1-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김동호 목사

‘여리고’ 성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1절). 여리고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성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여리고’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증에 의해 무너진 성이요(6:20~21), 기성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절대로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했으나(수 6:26), 헤롯대왕은 이곳에 자신의 왕궁을 세웠고, 새로운 국경지로 건설했습니다. 이 성 근처에서 일을 보지 못한 채 구경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보게 되었고(눅 18:35~43), 성 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삭개오

“삭개오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2절).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란 ‘삭개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리고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거래의 판매세 및 관세를 거두어들이던 세리를 대표하던 자요,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고 재물을 축적한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모으는 대국노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며(7절), 실제적으로도 부정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니다(8절).

삭개오의 관심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니 그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3절). 그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한 번 보려고 했습니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키도 작은데다가, 물러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중해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키는 약 150센티미터 이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살아오면서 작은 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키가 작다고 놀림받았을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이유로 부위를 당하여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이를 악물었을 것이며 성공을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의 열등감은 아마도 세리장이 되는 동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키, 그리고 물러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볼 수 없게 되자, 특별한 수단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위한 뽕나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4절).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뽕나무는 그의 목적, 즉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가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한꺼번에 바쳐버리는 은은의 장소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뽕나무가 그의 고달픈 영혼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듯 삭개오도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이삭의 낱과와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놓고 있던 수확자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던, 예수께서는 인간들 속에서 남보다 훨씬 취급받으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후리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하였나니”(5절). 놀랍게도 삭개오가 예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그를 불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만난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주님은 천로부터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창 22:22, 삼 2:23). 그래서 지금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일컬어 친밀하게 불러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나 그에게는 ‘세리장’, 곧 로마의 앞잡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모으는 사치이므로는 의미로서, 유대사회에서는 죄인으로 판명난 이름이 지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를 수군거리며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7절) 그런데 예수께서 친밀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뿐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함께 머무시겠다고요

청하셨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취급받던 까닭에 사람들이 꺼려했던 자신의 집에, 모두가 자신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던 집에,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친밀하게 불러주시며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의 방문은 그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삭개오의 반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6절). 삭개오는 망설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고,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예수를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유대인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몹시 싫어했지만, 먼저 요청하신 주님의 충직적인 요청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향해 단아두었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삭개오가 겪었던 감각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리라”(7절). 예수께서 삭개오와 별이사는 매우 낯선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새로운 삶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부모소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났 것을 토해낸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8절).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토해낸 것에 대해서는 배 배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구체적인 실천적이었으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께 붙들린 그에게 더 이상 재물은 가지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값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도 바린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삶은 그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구체적인 실천적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집안이랄로 천국이 아닐까요!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9절). 예수께서 구원을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의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사도가 후에 기록한 사도행전 16:31의 말씀을 미리 보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삭개오도 스스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토해냈던 자신의 과거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평가가 싫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 모든 허물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한 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 자신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가정에서 죄인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한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 죄인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집에 모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분명한 결단은 그의 집을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집은 주님만이 선택해서 재물로 지어진 구원의 집이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기성 라합의 집은 구원의 집이 되었듯이, 삭개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새로운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에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

2002 중현교회 단기선교 나라소개 ⑧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

1. 달척이지만 열려있는 땅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 위치한 남한의 2배 가량 되는 나라이다. 고온건조한 대륙성 기후와 실크로드의 문화적인 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것 같은 문화적 유산 속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슬렘문화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모슬렘국가이다. 88%가 모슬렘이며 자민족에 대한 포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90년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모슬렘을 국교화하고 종교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닫혀져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천년의 모슬렘 전통에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혼란한 중에 있다. 70년간의 소비에트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도전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은 균열이 가고 새로운 가치는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모슬렘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전통 모슬렘으로의 회귀는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개인의 심정은 가난해지고, 가난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2. 사역 종류

1) 노병전도 사역

대도시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의 노병전도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우즈베크인에 대한 포교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노병에서 찬양하거나 전도하는 나눌어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소수로 나누어 노병에서 전도하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소수를 대상으로 깊게 전도를 하는 것이 좋다. 관심있는 사람의 경우 저녁 초청등을 통해

깊이 있는 복음전도와 교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축호전도 사역

지방도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과거 한국의 농촌 사회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예의를 갖춘 외국인인이 집을 방문하여 문화적인 질문을 할 경우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수로 나누어 마을 중 몇 집을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을 유지의 허락을 받아야 함으로 지방도시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마다 5,6가정만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어린이사역

축호전도와 마찬가지로 지방도시의 경우 마을마다 아이들이 공터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동안 전도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모여든 상태에서 장시간 사역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1시간 미만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리인사역

우즈베키스탄은 고리인들이 주로 한 지역에 정착하여 고리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선교활동은 활발하며, 이민 1,2세대의 경우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역이 가능하다. 축호전도와 어린이성경학교, 초정교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역 전에 마을지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2차 CMTC 강의 안내

주일반 (5/19), 토요일반(5/25) 제7강: 전도훈련(여국근 목사)

주일반 (5/26), 토요일반(6/1) 제8강: 단기선교의 실제(민병문 전도사)

* 2차 CMTC 집중반

일시: 2002. 6. 6. (목) 9:00 ~ 21:00 장소: 제2교육관 4층

심사자에서 1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과 조롱의 상징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각각 자체의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징은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역사나 신념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꽃은 고대 중국, 이집트와 인도인들에 의해 사용되던 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한 불교와 관계되어 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이슬람교는 초창기부터 상징된다. 우리 기독교 역시 십자가라는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일반인인 죄인의 처형과 관련이 있는 이유에서 회피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카타르의 벽과 천장에 나타나지 마라 하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주된 표식들은 공작, 비둘기, 월계관, 혹은 한 마리의 생선 그림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된 상징은 단순한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선택한 데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충심을 표시하는 기념물로써 그의 탄생을 그의 통치를 택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죽음, 곧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택했다는 사실은,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바울은 그의 "십자가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미친 것"(고전 1:18,23)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경하게 죄인으로 정죄 당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할 수 있었겠는가?

십자가는 그 당시 세계의 변두리에 살았던 야만인들에 의하여 고안된 후에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그 때까지 행해졌던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야만적인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이다. 거기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살인, 반란, 혹은 무장 강도의 죄를 범한 자,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해졌다. 로마 시민들은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십자가에서 면제되었다. 만약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무서운 것으로 간주했다면, 그 이유가 다르지만,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대인들은 '나무'와 '십자가'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무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도 서로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힌 범죄자에게는 사도들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자수를 받았으니라'(신 21:23)라는 율법의 공적인 잔술을 적용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죽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로마의 배경을 가졌든,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든, 혹은 그 양쪽을 모두 배경으로 가졌든, 초기의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요, 인간의 구제인 자기 십자가 위에서 삶의 마치는 주장을 아주 좋은 장소 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2세기 이후로 풍자되었던 사도사타의 루시안(Lucian)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 "십자가에 못박힌 그 괴변가를 믿으며 그의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선교에 대한 권유를 받로서

박 찬 서 (침사, 11교구)

2월 어느날 단기선교를 가야한다고 목사님, 집사님이 불러가는 듯이 저에게 말을 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웃으면서 그냥 흘려보냈지만 저에게 관했던 두 분의 말씀이 머리 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그런데 나는 '국내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해외 단기선교 라니...' 하며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생각 속에서 CMTC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CMTC훈련을 매주 받는 동안 점차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에 순종함도 생겼습니다.

11교구 1차 몽골로 단기선교를 가기로 정해졌었습니다. 팀원들도 정해지고 선교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훈련계획서와 워크북도 제작하였으며 몽골에 대한 문화(풍속, 법규, 관습)와 언어를 배우면서 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몽골 단기선교를 통하여 노병전도, 1:1전도(종신), 팀(믿음, 소망 사랑)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참여한 지체들이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몽골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주시어 옥토밭에 씩이나서 열매를 맺어 몽골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를 믿으며 부족하지만 저희 팀원들은 성령님들 의지하며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도부탁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임재와 내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촉함이 없게 하소서.
2.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되게 하소서.
3. 복음을 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4. 늘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다직하여 성령의 역사 아래나게 하소서.
5. 믿음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자료를 잘 정리하여 다음선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가는 이유

이 문 희 (청년부)



어렸을 적,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갔을 때부터, 주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 품 안으로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땀겨나기라고만 했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만 하면 되지' 했던 저를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믿음생활을 착실히 해나갈 무렵에는 제게 선교라는 일을 열어주셔서 잡일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짧은 선교 여정 중에도, 힘들게 살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외국 아이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어렵고 고단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돌아와서는 한 동안 제 안에 성령의 불길이라는 듯 했지요.

주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왜 이런 간사한지요. 믿음에 좀더 열심을 다해야지, 성경도 매일 읽어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했던 의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채 1년도 되기 전엔 다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무책임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저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어서 저를 다시 선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언가를 맡겨 주시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나되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오라 하십니다. 꿈도 꾸어보지 않았던 척박한 그 땅에, 왜 저를 가라 하십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일까요? 하지만 주님, 주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어느 상황이든 주님은 주님 뜻대로 기어코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투쟁부리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미천하고, 보잘 것 없습니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람들과 온전히 그 땅에 주님의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강한 자

권요셉 (청년부)

한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전 수련회를 가졌다. 비전 수련회의 주제 성구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들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17)였다.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씀이다. 선교에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모든 자리와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이 없었다. 교세 중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재였다. 아주 은혜로웠다.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소그룹을 만들어 선교사님들과 주제에 대한 시간을 가졌다. 내가 속한 소그룹의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키가 작고 정갈 캄보디아인처럼 생긴 불품없는 사람이었다. 청년들은 수련회 중에 받은 은혜들을 나눴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었다. 청년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이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청년은 '복음을 위해' 국제 기구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국제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힘'이라는 것이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름 있는 모 대학 국제학과를, 어떤 청년은 선교학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의 모 대학 선교학과를, 또 어떤 청년은 같이 사역할 배우자를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실 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들은 선교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었다. 나 역시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제학이나 언어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나눔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도 복음을 위해 많은 힘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아무 힘도 주지 않았습니니다. 전 아내도 없고 변변한 대학을 나간지도 못했습니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넌 작고 약하단다. 그게 너란다. 너 무력하단다. 넌 아무 것도 할 수 없단다'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래서 크게 낙망했었는데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니다. '내가 너의 힘이네. 너에게 또 무슨 힘이 필요하니?' 하는 말씀요."

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는 무력하니, 나는 무력하니, 그것이 내게 기쁨이니이다.

성도의 죽을 준비하기

2. 무력함 속에 잠긴 은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은 경 (청년부)



결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정의 참 모습을 그려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끼리 좋아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자녀(백성)로 성장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처에게 평신도 제자훈련을 받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한 명 이든지 두 명 이든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를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참된 뜻을 알아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물질(돈)이 되어 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물질을 향해 가고 교육 또한 물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늘 깨어있는 가정,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아 발견하고 새워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나만이 존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 수 있을 만큼 존중받지 않습니다. 방안에 혼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사람의 존엄이 없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잠시 그 고요함을 사람들 정화시킵니다. 하지만 밖이 고요해지고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매우 한 번이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흐르며 시간은 고독의 사막이 되어 내일에 펼쳐집니다. 나 자신의 조바심,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버림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 그 고독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무력합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이렇게 함께 살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와 헤어사는 것이 아니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구원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죽음도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혼자일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아무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기력을 잃고 정신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사회와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 것도 아니, 완전하지 무력하며 완전히 개인인 인간을 존중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인간의 무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여 느껴지는 인간의 무력함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무력함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한국교회사] 교회의 형성과 발전(5)

독립교회 - 지식인층의 입교

청일전쟁 중 민족 계층이 대거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외세의 침략과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기독교의 유식계층이 형성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우리 나라는 많은 이권을 빼앗기고 국내의 정치도 혼미를 거듭하였다. 을미사변과 아관 파견 이후 우리 나라는 외국의 이권 쟁탈의 싸움터가 되었고, 정치는 일본이나 러시아 세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나라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되자 정계 일부와 국민 사이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부국강병을 기약하는 자주 독립, 민권 신장, 자강 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896년에 서재필·이상재·윤치호·남궁훈 등이 독립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김진충의 반대와 일본의 견제로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정부 내 수구세력은 개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다. 정부는 독립 협회 간부를 체포했고 체포된 대표적 정치범들은 투옥되었다.

이승만이 옥에 갇혀자 아펜젤러·벵커·언더우드·게일·헨버트 등의 선교사들은 그의 석방운동을 펼치는 한편 감옥 안에 신앙서적과 교양서적을 넣어주었다. 이들 정치범들은 감옥 내 도서실에 비치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언더우드와 벵커는 매주 교대로 감옥을 방문해 신앙상담을 하였으며 이승만의 적극적인 전도로 집단적인 옥중개종이 일어났다.

이상재는 환상 중에 큰 직책을 받은 후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개종을 결심했으며 유성준은 1년 동안 성경을 읽은 후 언더우드의 권면을 받아 기도하던 중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눈물이 비오듯 하며 사실 평생에 경탄한 일절행동이 정직·열결·공평한 줄로 자신하고 자랑한 것이 다만 자기를 위하는 명여와 공리심뿐인 죄임을 확언하게 됐다" 개종을 결심하였다. 1902년 말에 이미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이승만을 비롯해 이원규·이상재·유성준·김경식·홍재기·안국선·이승인·신홍우 등이 1903년 말에 신앙을 고백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체험이 옥중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들 옥중 개종자들은 1904년 노일전쟁 전에 모두 무죄로 석방되었다.

풀려난 후 유성준·이원규 등은 연동교회에서, 이상재·신홍우·김경식 등은 화성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신앙운동을 시작하였다. 민중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던 한국 기독교에 양반, 유식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신분계층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두 계층간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으나 신앙으로 그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기독교는 총체적 민족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다들 물어봐

53장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구약성경학자이며 목회자요 문필가였던 김경준목사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장을 역임 할 때에 개편 찬송가 편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1967년 작사한 아름다운 예배 찬송가이다. 곡은 당시 음악 위원인였던 박승교목사가 작곡하였다.

- 1절: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권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 후렴: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 2절: 사랑이 넘치는 지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통성한 구원의 하나님 침례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해를 용서하여 주소서 천성과 영광과 생령 구원의 하나님
- 3절: 영원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소서 모든것 마음을 지배할 줄 하시고 주의 뜻 바라며 침례에 살아 기뻐 주 말씀 따르시옵소서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 4절: 주 임하여 주소서 주의 임이 기쁘고 그 말씀 힘 되며 희망 솟아오르네 그보다 슬픔은 이기게 하옵시고 영생의 빛이여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의 지함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김미로로 아름다운이 배여 있으면서 웅장한 느낌을 주도록 불러야 한다. 특별히 후렴의 "만나주소서" 부분은 너무 가칠지 않도록 약간 절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정원목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기환' 성도를 소개합니다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 수영이 취미이자 특기인 미혼 청년입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사시고 직장 때문에 생계준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 중인 분이 전도를 받던 중 강압에 불 일이 있어 왔다가 중환 교회 전도자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두 번 중환 교회에 나오고도 지가 없는 교회에 갈 것이지 멀리 중환 교회에까지 나와 중환 교회를 계속 맡았었는데 새가족부 선생님께서 매주일 일찍 일찍 전화로 개회주셔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웠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배우는 말씀이 잘 이해되고 쉽게 마음에 와 닿아

서 기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제대로 믿어오셨고 생각했습니다. 새가족부 선생님께서 주일 아침 일찍 전화해 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감사하고 기쁘게 납니다. (한숙정 통신원)

+ 양호실

11교구 이서훈 권사(여62세) 허리 디스크로 자가 약물 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교회에도 출석하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교구 최경호 권사(여67세) 4차례의 신장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어 10 여년 전부터는 전신에 걸쳐 움직이지 못하여 남편이 계속 간호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가 가득 차오르고 몸도 매우 마른 상태입니다. 환우와 가족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순례 권사(여81세)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주일 후 퇴원하였으나 거동을 못하며 식사도 잘 못합니다. 독거 중으로 동사무소 도우미가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병세가 호전되고 위로의 손길이 더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일섭 권사(여68세)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디스크까지 겹쳐 허거운 상태입니다. 투병생활에 승리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이봉주 성도(남29세) 왼쪽 눈 안구 돌출로 사물이 2개로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 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귀준 성도(남65세)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입니다. 믿음으로 잘 견딜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 양성훈련

성령이 임하시면

Z교구 (김용복 목사, 김연식 전도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야 되실 것과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인데 제자들은 이 땅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성격을 1등 되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구역원들이 이러한 이유로 상담을 한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1등 되게 해 달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모를 때 받았던 실수와 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실망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제자들은 십자가나 십자가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융성하기를 원했고 그 우정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뒤에는 중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언으로서 부름 받은 것이지 실판을 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십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쁜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구역장을 향하여 불만을 가득 품는 구역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원이 차라리 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바이며 성령 임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하여 갈릴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실망을 합니다. 가정의 불화나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의 성적 문제로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실망하여 구역장의 직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할 길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격이, 사업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엠마오는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중언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 중언이 되어야 합니다. (권오섭 기자)

말씀 안에서

중은 속 (에바다루 교사)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가시기 살짝 박혔어요. 잘 안보이고 별로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두었는데 3일 정도 뒤어서 가시가 박힌 부분이 빨갧게 부어오르고 아파오더군요. 참고 계속 일을 하고는 퇴근후에 집에 와서 바늘로 건드렸더니 고통까지 나왔어요.

오 주여!! 그리고 나서 약을 바르고 싸매주고 하루가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얼른 낫는 것이었어요. 그 때 주님이 작은 교훈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그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상처나 부분처럼 내 영혼이 굼아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아프고 더 힘들고, 속상하고... 하지만 말씀의 약을 바르고 기도로 싸매어 줄 때는 얼른 낫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달 전에는 고민하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귀찮았지만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침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6일에 명화가정에 심방을 가시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아 주님이 명화를 끌어안고 그렇게 아파하셨을 거예요. 좀 더 일찍 가서 위로해 주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주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랄지 다시금 깨달은 귀한 시간이었으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요새 바쁘고 신앙정경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죄로 굼아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합시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한마디 위로의 말과 관심, 기도로 도와주세요. 빛을 발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세요.

신학칼럼

보통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부활한 없는 동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주이었고 가장 완벽한 것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았다. 그것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동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창 1:26-28) 이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금하신 금령(禁令) 곧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기로 결심했다. 이들을 생각에 그 길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줄 알았던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창 2:17/정명 죽으리라)이었다.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던 행동이 그 반대로 죽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나타났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형벌이 내려졌다.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없앨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형벌에서 벗어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세상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로 의로움과 복을 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마 5:45).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통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보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감화시켜 죄를 제재(制裁)하시며, 사회정서를 유지하시며, 시민의 정의를 증진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에게 구별없이 자기에게 선하게 보시는 대로 그 죽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예 공로로우시고 거역하신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어찌하여 진노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롬 16:26)라는 말씀처럼 일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들이지는 사람은 중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동생자를 주셨지만(요 3:1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요 1:12) 외에는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라'(요 17:12)함은 분명히 영생에 들어갈 자와 '거역'하고 그 자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마 25:41-46)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니 이를 인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나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이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요 14:6).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서 부르시니 살으시니 그 선한 은혜를 전한분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일로 더 나아가 그 사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곧 영원한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 유진 (목사, 청빙부 지도)

다른 종교에서 본 예수님

박경배 (회신부 교사)

제작된 부활절 즈음에 뉴스워크 한국어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무이한 존재로 떠받들여지는데, 다른 종교(회교, 힌두교, 불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종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불교도인 달라이 라마 예수 그리스도는 대오각성한 존재이거나 리마도형 영적 깨달음을 얻은 보살로 여깁니다. 복음서를 읽은 힌두교도들은 예수가 '아비지와 나는 하나'라고 천명한 요한복음의 구절에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 구절은 누구나 엄격한 정신 수행을 통해 보편적인 '神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힌두교의 범신론 기본교리와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인 디파크 초프라는 '그리스도나 하느님이나, 크리스마나 부처나 그들의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교도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세계 모든 종교가 화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기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부정합니다.

심장자의 죽음에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의 예수와 명확히 구분짓는 못대가 됩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야는 결코 죽지 않으며 더군다나 범죄자로 처형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은 알라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돼 철저히 거부합니다. 힌두교의 경우 죽음의 나락에서 벗어난 수행자로서의 예수만을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종교들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예수를 아버지에게 화한 하느님의 아들로 숭배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종교에 예수님을 바를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신앙의 정제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유월절(passover)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 마로와 애굽 땅에 행하셨던 97가지의 계명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밀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출 12:1-11).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마로가 두 손을 드는 것을 전제한 명령이었으며, 또 출애굽을 예고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미치는 범위는 출 11:5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굽 나라 사람의 소유 중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 처음 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양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던 애굽이던 모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쉽지 않듯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양의 피를 묻어 마르고, 재앙을 피하라는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믿음이며 순종하라는 거요. 그때도 지금이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살 길이지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도 별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신가요? 다시 말씀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라"(출 12:1).

"내가 애굽 땅을 갈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멸하지라 내가 피를 보니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출 12:13). 피는 생명을 나타내요. (창 9:4)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입니다. 이는 또한 장자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음을 뚜렷이 계시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벧전 1:18-19).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 12:14). 유월절의 참된 현재의 의미는 진정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고전 11:26).

바로 왕은 자신의 딸 아들을 잃습니다. 계왕은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미천한 자까지 다 미쳤습니다. 생육자가 말입니다(출 12:29). 하나님께서는 그 본의 신성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인과 재물을 결코 피해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유로이 이용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계왕도 서슴지 않습니다. 계왕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아니고 자급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치참한 형극이 결국 구원의 양의 방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권함일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모임

1. 장로 원오세백기도회
일시: 20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와 화오세백기도회
일시: 2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예배위원회 영성훈련
일시: 28일(화) 18:30
장소: 강일리움
대상: 예배부, 성령부, 안대부,
헌금부 봉사자 전원
4. 전양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에 후
장소: 한양리원회실
5. 봉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는 15:30
장소: 봉사위원회 사무실
6. 교정전도회 월례회
일시: 2022(다움유주) 15:00
장소: 배다나움
7. 권사회 3차회 월례회
일시: 22일(수)수요수제에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4차회 월례회 및 전도
일시: 25일(토) 17:00
장소: 논현역 지하
2. 바울 7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407호
3. 바울 10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12호
4. 바울 11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307호
5. 바울 13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6. 바울 16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복자전 지하 2층
7. 베드로 3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8. 베드로 5차회 월례회
일시: 24일(금) 22:30
장소: 송원기도원
9. 베드로 6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407호
10. 베드로 7차회 월례회
일시: 23일(목) 19:30
장소: 콘택트링방

11. 베드로 9차회 월례회
일시: 23일(목) 19:30
장소: 강일리움 집사대
(면목3동 용암산 한신2차
동 301-311 ☎ 491-1581)
12. 베드로 11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307호
13. 베드로 17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2교교육관 4층
14. 요한 6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3부예배 후
장소: 교육관 205호
15. 요한 9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육관 2층 205호
16. 요한 17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19:00
장소: 복자전 지하 2층
17. 한나 13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18. 에스더 1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19. 에스더 2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20. 에스더 5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21. 에스더 6차회 월례회
일시: 23일(목) 영성훈련 후
장소: 송원기도원 에스더관
22. 에스더 7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407호
23. 에스더 9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배다나움
24. 에스더 12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25. 에스더 13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배다나움
26. 에스더 14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2교 교육관 205호
27. 루디아 6차회 월례회
일시: 23일(목) 영성훈련 후
장소: 송원기도원
28. 루디아 7차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동훈동 대림성당
29. 루디아 8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다움주 새가족기도회 담당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설교자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정재성	여극근	안창덕
기도자	최지윤	김창국	양승철	이달옥	정재호	윤신욱	김옥윤

30. 교육관 507호
30. 루디아 10차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조문산 성도회(913-0719)
31. 루디아 12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교육관 205호
32. 루디아 13차회 월례회
일시: 23일(목) 10:00
장소: 인천 강동로 합학동전
☎ 010-430-2315
33. 루디아 15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후
장소: 강일리움
34. 마리아 1차회 월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캄반눔
35. 마리아 7차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0:30
장소: 용림리광원
36. 마리아 12차회 월례회
일시: 26일(다움유주) 12:10
장소: 교육관 205호
37. 마리아 13차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1:00
장소: 인천강동합학동전
38. 마리아 14차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0:30
장소: 한운교 집사대(653-7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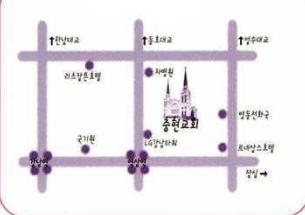
발세

1. 조말제 성도
(이후주 집사 장모, 임병희 집사
모친, 4교 우정수) / 14
일 발세, 16일 장례

결혼

1. 장재석 군(장기원 집사, 이주
현 권사의 아들, 2교)과 강혜
일 양(강광현 씨, 박정현 씨의
딸) / 25일(토) 14:30, 마살레행동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매 주 일		
구분	시 간	참 소
주 일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9세 이하 어린이 동행예배)	본 당
	IV 오후 1:00(어린이 동행예배)	본 당
	V 오후 5:00 (9세 이하 어린이 동행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00~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성 · 기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 | | | | |
|-------------|-----------|-----------|-----------|-----------|
| 김의철
신도회장 | 김은호
총무 | 노광현
주무 | 오건국
주무 | 이병하
주무 |
| 윤인현
신도회장 | 최태원
주무 | 임병철
주무 | 김보은
주무 | 오경현
주무 |
| 이 후
신도회장 | 남남수
주무 | 정은석
주무 | 김영림
주무 | 문종구
주무 |
| 조인재
신도회장 | 김종구
주무 | 최부경
주무 | 김재철
주무 | 이창호
주무 |
| 차진숙
신도회장 | 박영식
주무 | 김광남
주무 | 이종석
주무 | 윤성철
주무 |
| 이하영
신도회장 | 이병호
주무 | 안준호
주무 | 최병환
주무 | 임부원
주무 |
| 이종성
신도회장 | 최기홍
주무 | 이갑재
주무 | 전홍용
주무 | 송준현
주무 |
| 이정우
신도회장 | 김단우
주무 | 황영일
주무 | 한승규
주무 | 김영수
주무 |
| 정종식
신도회장 | 김환기
주무 | 원운철
주무 | 이희수
주무 | 안동현
주무 |
| 황인하
신도회장 | 김주형
주무 | 홍동욱
주무 | 이계인
주무 | 박대양
주무 |
| 이대식
신도회장 | 정대두
주무 | 박종규
주무 | 전민욱
주무 | 조종환
주무 |
| 배준식
신도회장 | 김영남
주무 | 이성호
주무 | 박찬섭
주무 | 최지윤
주무 |
| 노영환
신도회장 | 박철구
주무 | 정병길
주무 | 신상수
주무 | 김병형
주무 |
| 고재승
신도회장 | 김영은
주무 | | | |

■ 부목사

- | | | | | |
|-----------------------|-------------|-------------|-------------|-------------|
| 이종대
신도회장 | 정현민
신도회장 | 김동하
신도회장 | 차병준
신도회장 | 김병태
신도회장 |
| 서광진
신도회장 | 정재성
신도회장 | 이준경
신도회장 | 박인기
신도회장 | 여성기
신도회장 |
| 류병희
신도회장 | 노경록
신도회장 | 이종철
신도회장 | 김영훈
신도회장 | 여극근
신도회장 |
| 김교성
신도회장 | 송길환
신도회장 | 이수근
신도회장 | 이유진
신도회장 | 안창덕
신도회장 |
| 방준영
신도회장 | 나영환
신도회장 | 정진호
신도회장 | 김용덕
신도회장 | 이성욱
신도회장 |
| 고광환
신도회장 | | | | |
| ■ 찬양감독 강인규 | | | | |
| ■ 감 도 사 이정철 | | | | |
| ■ 여전도사 | | | | |
| 정인희 김경자 송하영 신동자 윤인숙 | | | | |
| 김옥윤 한영준 김민석 홍순애 이옥주 | | | | |
| 김발자 안준호 최효식 김경연 조옥자 | | | | |
| 장덕원 김경진 장재구 최문실 | | | | |
| ■ 교정전도사 박영덕 | | | | |
| ■ 선교전도사 정은희 | | | | |
| ■ 단기선교사 강기영(스위스 함계) | | | | |
| ■ 단기평신도교사 최은아(스위스 함계) | | | | |
| ■ 협력선교사 허요셉(영국) | | | | |

충현중보의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시라.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과 열매를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전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라.

12교구 우크라이나 · 남미정탐팀 귀국

11교구 몽골 · 2교구 카작스탄 · 16교구 우즈베키스탄팀 출발

지난 5월 3일 우크라이나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2교구 선교팀이 지난 주 5월 15일(수)에 무사히 귀국하였다. 현재 17교구 몽골팀이 선교중에 있으며, 5월 20일(월) 11교구 몽골 팀과 5월 21일(화)에는 2교구 카작스탄팀과 16교구 우즈베키스탄팀이 출발할 예정이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49	곽동준	1	소양부	한신호(1)	357	이선미	19	청년2부	
350	원현자	6	에스더		358	정성미	19	청년2부	박옥선(8)
351	곽한근	8	베드로	강교준(8)	359	최다현	19	청년1부	
352	손영숙	8	에마다부		360	신성일	19	대학부	최승진(2)
353	박오규	11	청년2부		361	고진희	19	청년1부	
354	이태봉	12	소양부	강순욱(6)	362	김태수	19	대학부	전성호(19)
355	신대배	19	대학부	전준호(19)	363	이덕주	19	대학부	
356	이동우	19	고동부	김상현(17)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